

2024년 6월 23일. 23 June 2024
금문교회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에배.
GGPC 74th Korean War Memorial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 "And when you pray,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at the street corners,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6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and shut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7 "And when you pray, do not heap up empty phrases as the Gentiles do, for they think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8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9 Pray then like this: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일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온 세상에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소금과 빛 되는 성도들의 사역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아직도 전쟁 중이며, 분노와 미움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그 나라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선교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모두 나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마태복음 Matthew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마태복음 Matthew 6:10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중에 길을

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1920년, 일제 치하에 태어났습니다. 1943년, 국내 항일운동을 주도하다가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꾼 나라는 광복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안맹호 목사님이 주도하는 목회자 독서모임에서 "살롬 한반도" 통일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내가 한 시간 발제하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에 가장 좋은 나라는 "통일조국"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사랑하사, 분단된 조국이 살롬으로 하나가 되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갈린 이 때,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과연 더 좋은 나라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문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2천 년 전,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삼위일체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으로서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1. 시간(time)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when) 임하는 것입니까?

1-1.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죄를 사함 받았으며, 병자가 병에서 놓여 해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마음껏 먹었습니다. 친구 없이 외톨이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영접하였습니다.

1-2.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아니"입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 때에, 천년왕국이 열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 공간(space)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where) 임하는 것입니까?

2-1.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곧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in ways that can be observed,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누가복음 Luke 17:20c-21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here the land)이 아니라 "저기"(there the Heaven)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 곧

장망성입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time)으로, 공간(space)으로 양면성(double-aspects)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1. 그것은 "미루어진 소망"(a delayed hope)이 아닙니다. 소위 "희망고문"(hope tortur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고 온다고 기다리면서 실제로 매일의 삶은 고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희망고문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끝모르는 그 소망을 참고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How long?

2. 하나님 나라는 "여기 지금"으로 "치환"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세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지, 꿈만 같습니다. 최고로 대접하고, 최고로 정성을 쏟습니다. 특별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판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1.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내일"(tomorrow)의 일입니다. 아직(not yet)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even today) 우리는 그 소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고 기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not in this world)." 아무리 어떤 교회가 좋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아름다워도 "인간의 냄새"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거나,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서든 이 세상의 어떤 제도가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신약의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결국 "장차 오는 천국"(the coming Kingdom of God)을 안내하는 "그림자"(fore-shadow)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 그 즐거움에 취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끈이 약해지고, 끝내 끊어지고 만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망할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 점에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천국을 소망하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현혹이며, 속임수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If, on a quiet sea, Toward heaven we calmly said, With grateful hearts, O God, to Thee, We'll own the favoring gale.

But should the surges rise, And rest delay to come, Blest be the tempest, kind the storm, Which drives us nearer home.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는 천국 가는 길에 “위로”가 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고난도 눈물도, 천국소망이 있으면, 오히려 “추진력”을 주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각각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나중(now and then), 그리고 여기와 저기(here and there)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끝내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회(church)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model)이며, “그림자”(fore-shadow)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성전이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증거 하는 그대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과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대로입니다.

교회생활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천국사모”의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것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여기서 발견되는 불완전한 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parables of Jesus)는 모두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treasures)를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고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샀습니다.

어떤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달란트(talents)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 이문을 남겼는지 회계하였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나신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human beings on the way)입니다. 영원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훗날,”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받는 “은혜”(grace)는 그 날과 그 자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충분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전파의 길, 선교의 길, 교회개혁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천국소망"(hope for Kingdom of God)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아름다운 모형과 그림자로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신, 그 모든 귀한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주님 앞에서, 이 기도는 놀랍고 귀하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Your Kingdom Come! Amen!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강림하신 그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내게 오신다면! 이것은 놀라운 영적 반전(wonderful, spiritual reversal)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2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치치고 곤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천국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John 14:6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삶을 주장합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my servants would have been fighting, that I might not be delivered over to the Jews. But my kingdom is not from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8:36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천국소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As we look not to the things that are seen but to the things that are unseen.
For the things that are seen are transient, but the things that are unseen are eternal.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4:18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I'm pressing on the upward way, New heights I'm gaining every day.
Still praying as I'm onward bound,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Lord, lift me up and let me stand, By faith on heaven's table-land
A higher plane that I have found.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이 세상에서 당한 시험과 환난, 눈물과 고난은, 이 땅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로써, 그 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 잡고 날 인도 하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아멘.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천국문으로 인도하러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